

독일어 교육에서의 평가*

이광숙

(서울대학교)

Lie, Kwang-Sook. (2004). Evaluation of German language teaching. *Foreig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7, 71-93.

In Germany, there is a lack of tests such as TOEFL and TOEIC. Many think that the individuality of students is ignored in such standardized tests. Multiple choice tests are criticized in Germany for the same reason. And Germans also think the evaluation form based on behaviorism is overused.

Each province in Germany has its own system to control the Abitur of Gymnasium which is necessary to gain the admission to universities. Students take examinations in each subject for the Abitur in the final year of high schools. The examinations are composed of diverse forms including subjective questions and sometimes multiple choice questions which are used only if necessary. Zertifikat Deutsch was developed in the 1960s and Test DaF has been used since 2001.

Tests must be based on the principles of objectivity, reliability, and validity. Evaluations should follow the goal and the curriculum of education. Subjective, objective, and semi-subjective questions should be mixed. Tests themselves should not be the object of teaching, but just tools to improve students' abilities. Tests should raise students' motivation, let them consider their own ability, and help them to choose their ways of learning.

This paper suggests further that evaluation forms of German education in Korea should be systematized. A German level test that examines grammar, vocabulary, and the four functions of language should be developed. It must be closely related to the goal, quality, and levels of German education both in high schools and universities. The level test would be possible through the cooperation of organizations, Education Ministry, public institutions such as German societies and Goethe Institut.

Databases of grammar, vocabulary, and the four functions of language could be built for each level of the test. This database should be helpful in teaching German and editing German textbooks as well. The test could also be acknowledged as an official German proficiency test and used for the entrance to undergraduate, graduate schools, jobs etc. The quality of German education will be improved through this consolidation.

* 본 연구는 2004년도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지원금으로 이루어졌음.

1. 평가의 개념

각 과의 교과과정에는 수업의 목표, 단계 및 방법이 명시되어 있다. 수업의 목표와 교수방법을 정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로써 중요한 것이 학생들의 능력 수준이다. 이 능력 수준에는 수업 초기의 것 뿐 아니라 일정한 학습 후에 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능력도 포함된다. 학생들의 능력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평가(Leistungsmessung)가 필요하며 평가는 일반적으로 시험(Prüfung)이나 테스트(Test)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평가는 일정한 학습 목표를 전제로 하는 교과과정에서 학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를 점검(Lernkontrolle)하는 것이다. 이 때 점검의 형태는 공식적인 경우와 비공식적인 경우가 있다.

공식적인 점검은 학생 개인의 언어능력과 지식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교수방법, 재료와 무관하게 학생들의 능력을 어느 장소에서나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점검하는 경우이다. 비공식적인 점검은 특정한 그룹에 제한되거나 즉흥적인 학습재료를 가지고 점검한다. 비공식적인 정보들은 교사의 의사에 따라 행해지며 그룹의 현재 상황에 관한 것으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독일어로 공적인 평가는 Prüfung(시험), 비공식적인 평가는 Test(테스트)로 표현하나 때로는 두 용어가 혼동되어 쓰인다. 이 논문에서도 원칙적으로 두 용어를 구분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는 경우에 따라서 용어의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2. 평가의 기능

독일어 수업에서 평가는 학생, 교사 또는 연구자에게 다음 세 영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다: 1) 교수와 학습의 수준 2) 학생의 개인 능력에 관한 평가 3) 교수와 학습에 관한 연구 상황.

첫 번째 기능은 교육적인 기능으로 학생과 교사가 평가를 통해서 이제까지 학습 활동의 결과를 알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수업에 관해서 계획할 수 있다. 학생들은 평가에서 얻은 결과를 근거로 자기 자신의 실력을 평가하여 앞으로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교사는

학생의 학습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알고 학생들의 약점이나 어려워하는 것에 관한 정보를 검토하여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를 계획할 수 있다. 평가의 두 번째 기능은 학생의 진급, 전학, 취업, 진로, 학교 선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독일 대학에서는 의학 등 정원 제한(Numerus Clausus)¹⁾이 있는 학과에서 김나지움(Gymnasium)에서의 학업 평가를 근거로 학생을 선발한다. 세 번째 기능은 외국어 교육 연구에 관한 것이다. 평가에서 얻은 실제 수업의 데이터를 근거로 외국어 학습의 사회적인 전제 조건과 교수법, 수업과의 상관 관계를 조사하여 효과적인 수업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다.

첫 번째 기능은 교수와 학습이 얼마나 발전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학생의 능력을 판단해 주는 “발전 기능(Entwicklungsfunktion)”이라고도 한다. 두 번째 기능은 교사에게 학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의 진로 결정, 학생 선발 등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는 조정 또는 선발기능“(Steuerungs- oder Selektionsfunktion)”이라고도 한다 (Perlmann-Balme 2001, 994).

학생들의 수준을 정확하게 점검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한 분야에 국한되어 일회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평가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다양한 종류의 과제에서 여러 번 점검을 하여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 평가의 기본 원칙

평가는 객관성(Objektivität), 신뢰성(Zuverlässigkeit), 타당성(Gültigkeit)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²⁾ 따라서 테스트나 시험은 학습자의 독어 실력을 가능한 한 정확하고 신빙성 있게 또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또 편리하게

1) 대부분의 독일 대학은 국립이며 대학 입학은 각 대학이 관리하지 않고 도르트문트에 있는 대학 입학 중앙 부처 (Zentralstelle für die Vergabe von Studienplätzen, ZVS)에서 관리한다. 의과, 심리학과, 생물과 등 실험이 필요한 학과에서는 실험실의 자리 때문에 정원이 제한되어 있다.

2) 에셔 (Esser 1991, 171)는 평가의 기본 원칙을 주원칙과 부원칙으로 구분한다. 주원칙에 에 언급한 세 가지 원칙이 속하고 부원칙으로는 규범성, 비교성, 경제성, 실용성이 속한다. 위의 세 가지 원칙은 다시금 하위 부류로 나누어진다. 자세한 것은 에셔 (Esser 1991)를 참고하기 바란다.

실행되어야 한다.

1) 객관성

평가는 누가 하느냐에 관계없이 결과가 공정해야 한다. 평가의 내용뿐 아니라 양식도 객관적이어야 하며 평가 시간, 길이, 내용도 정확하게 지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외국어 테스트에서는 사전의 사용여부도 확실히 정해야 한다. 테스트가 선다형인 경우 평가의 객관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만 인터뷰나 필기 시험 등의 평가에서는 아무래도 평가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판단이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평가자에게 어떠한 경우에는 어떠한 점수를 주어야 한다는 정확한 평가 지침이 제시되면 평가자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2) 신뢰성

평가 과정이 어느 정도 정확한가와 연관되며 같은 과제를 반복해서 평가하는 경우에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게 되면 신뢰할 수 있는 평가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신뢰성은 테스트의 양과 연관된다.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개별 평가를 해야 하는지, 또 평가의 어떤 과정이 결과에 신뢰성을 흐리게 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평가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오류가 생길 수 있다. 평가 지침이 명확하지 않거나 테스트 과제 지침이 복잡하거나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 시험 장소가 시끄럽거나 음향이 안 좋거나 시험 받는 당사자의 심적 또는 육체적인 상태가 안 좋은 경우 등 테스트 외적인 요소도 평가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되도록 개별 평가를 많이 하여 오류의 빈도수를 줄여야 한다.

3) 타당성

평가는 점검하고자 계획했던 대상이나 내용을 실제로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학습 목표와 교과목 목표가 우선 명확하게 제시되어 평가의 내용,

형식, 기준과 부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과목 기말 시험에 관한 제반 사항은 교과목 목표에 정해져 있고 또 이제까지 수업에서 다루어졌던 내용과 형태를 다루어야 한다.

이외에도 실용성이라는 원칙이 있다 (한민주 1999, 389/ 최은규 2003, 185). 이 원칙은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 장소, 인원 또 평가자의 자질과 채점 시간과도 연관된다. 시험을 치르는 장소나 시간이 수험생에게 유리하여야 한다. 시험 받는 인원도 적정선을 넘지 않아 당사자에게 편안한 느낌을 주어야 한다. 특히 주관적인 채점인 경우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인원을 동시에 평가를 하게 되면 시험관 자신도 객관성과 신뢰성 면에서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 또 특정한 분야는 이 분야의 지식이 있는 시험관이 평가를 해야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 진다.

일반적으로 시험 시간은 한 번에 한 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시험 시간이 한 시간이 넘는 경우 중간에 휴지가 있어야 하며 또 시험 시간이 여러 시간인 경우 시험이 여러 날에 걸쳐서 시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험 당사자의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4. 테스트의 종류

평가는 일정한 목표를 정하여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한다. 이 때에 목표는 다양하며 이 목표에 따라 테스트/시험의 종류가 달라진다. 시험의 종류를 구분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들이 있다 (Perlmann-Balme 2001, 996): a. 시험의 내용 (예: 이제까지 배운 학습 내용) b. 시험의 결과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예: 학생, 교사, 외부 관계자) c. 시험의 결과가 무엇을 결정하는 데 유효한가 (예: 대학 입학, 취직) d. 학습 시간, 학습 재료가 얼마나 소요되었나 e. 평가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나.

이 시험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중요한 것으로는 1) 배치/등급 테스트 2) 적성 테스트/입학 시험 3) 성취 진단/진도 테스트 4) 종결/졸업 시험 5)숙달 확인 시험 6) 자기 평가가 있다 (Perlmann-Balme 2001, 996).

1) 배치/등급 테스트 (Ein- und Weiterstufungstest)

학습 초기에 점검하는 테스트로 참여자의 서열이 필요할 때나 참여자의 능력이 달라서 여러 그룹으로 나눌 때에 쓰인다. 이러한 테스트는 배운 학습 내용과 연관되거나 아니면 아주 일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중요한 것은 모든 참여자가 동시에 동일한 테스트를 받고 또 그 결과가 비교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독일어 수업에서 교사가 학기초에 학생들의 독어 지식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의거하여 수업을 계획할 수 있다 (학생들이 무엇을 잊었는가, 무엇을 반복해야 하나, 학습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 등).

이 테스트는 시간이 엄격하게 정해져야 하며 평가가 짧은 시일내에 이루어지고 과제 유형이 평가하기 수월해야 한다. 대체로 선다형등 과제가 이용되며 이 테스트는 판단형이 아니라 진단형 과제로 학생과 교사에게 학생의 강점과 약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적성 테스트/입학 시험 (Eignungstest/Zulassungsprüfung)

적성 테스트는 학습자가 일정한 학습 분야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습자가 외국어를 습득하는 데에 소질이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데 독일의 외국어 교육 분야에서 이러한 평가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다 (Perlmann-Balme 2001, 1000).

입학 시험은 대학 등에서 학업을 위해 등록 전에 치르는 평가이다. 이 시험의 일종으로 외국인 학생이 독일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치르는 독일어 시험 (DSH)³⁾을 들 수 있다. 이 시험의 결과는 독일 대학에서 강의나 세미나에 참여할 만큼 독어 지식이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이 시험은 학습자의 자질이나 능력을 진단하기 보다는 독일 대학에의 입학 제한하는 기능과 독일어를 학문어로서 이해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3) Deutsche Sprachprüfung für den Hochschulzugang ausländischer Studienbewerber이며 1995년도 이전에는 PNDS (Prüfung zum Nachweis deutscher Sprachkenntnisse)이었다. 외국인들이 독일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치르는 어학 시험이다.

기능을 갖고 있다.

3) 성취 진단/진도 테스트 (Lernfortschrittstest)

이 테스트는 학생이 학습 과정을 얼마나 습득하였나 또 교사의 수업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나에 대한 정보를 준다. 테스트는 일정한 학습량을 감안하여 교재의 한 단원 또는 특정한 분야 (문법, 어휘나 언어 기능)를 다룬다. 일반적으로 교사가 특별한 준비없이 비공식적인 형태로 시행하나 학기말에는 필기 시험 등 공식적인 형태도 가능하다.

4) 종결/졸업 시험 (Abschlussprüfung)

참여자가 일정한 코스 마지막에 치루는 업적 평가 시험이다. 시험은 교수 계획, 교재와 연관되며 코스에서 다룬 내용을 포함하고 평가는 상대적으로 이루어진다. 평가의 결과는 학습자 뿐 아니라 학교 당국에게도 정보를 제공한다. 이 시험은 공식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지역이나 기관을 초월하여 일정한 수준을 요구한다. 또 이 시험은 다음 코스나 과정의 입학을 허용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 독일문화원에서 시행하는 초급 시험 Prüfung Grundstufe은 다음 코스로 올라가는 근거가 되고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시험 Zertifikat Deutsch als Fremdsprache은 중급과정으로 올라가는 기준이 된다.

5) 숙달 확인 시험 (Feststellungsprüfung)

일정한 시기에 언어 능력을 확인하는 시험이며 일반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비용을 지불하고 시험을 치른다. 이러한 시험을 치루는 동기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거나 직업을 위해서나 학업을 준비하는 경우이다. 이 시험은 특정한 코스나 교재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국제 공통이다. 이 시험은 정해진 어휘, 문법, 언어 구조에 근거하며 대체로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을 모두 포함한다. 이 시험은 평가 내용이 광범위하고 준비 기간을 많이 요하며 모델시험 문제가 있다. 전세계적으로 행해지는 독

일어 시험 Test Deutsch als Fremdsprache와 독일 시민 대학 연합과 독일 문화원에서 제작한 시험 Zertifikat Deutsch für den Beruf이 이러한 시험에 속한다.

6) 자기 평가 (Selbstevaluation)

학습자 자신이 스스로 가르치고 배우는 수업에서는 자신의 실력을 본인이 직접 평가한다. 컴퓨터 등 최신 미디어 개발로 인해 이 형태의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수업에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지식 수준과 학습 진도에 관한 정보를 모아서 앞으로의 학습 진도를 조정한다. 평가를 통해서 수업의 내용과 이에 필요한 능력을 단계적으로 습득해야 한다. 첫 단계로 스스로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하고 분석하여 진단한다. 그리고 나서 약점을 보강하는 전략을 세워 학습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컴퓨터로 짧은 시간내에 참여자의 언어 지식 수준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Cambridge Local Examinations Syndicate에서 개발한 CATC Computer Adaptive Testing System이 이러한 평가의 한 예이다 (Perlmann-Balme 2001, 1001). 시험관 없이 컴퓨터에만 의존한 이 평가는 15분 후에 결과를 알 수 있다. 이 평가는 데이터 베이스로 되어 있으며 수준이 여러 단계로 되어 있고, 읽기, 듣기 능력과 어휘 구조 능력을 측정한다. 듣기 테스트에는 그림이 이용되고 읽기 테스트에는 클로즈 테스트, 보충과제 등 다양한 방식이 사용된다. 이 시험의 장점은 시간이 절약되고 결과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며 과제 유형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4. 1. 독일 대학 입학용 어학 시험 (DSH)

언급한대로 외국인 학생이 독일 대학에서 공부를 하려면 등록하기 전에 독일어 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 시험은 학생이 독일 대학에서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을 점검하는 것이다. 따라서 강의를 듣고 내용을 요약하여 재정리 할 수 있는 능력, 학업과 연관된 문어 텍스트를 이해하고 이에 대해 논증할 수 있는 능력, 주어진 테마에 대해서 구어나 문어로 자신

의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시험에서 평가된다.

필기 시험은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며 구두 시험은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한다. 필기 시험의 네 가지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듣기 텍스트의 이해와 정리

학생은 보다 긴 텍스트를 두 번 듣고 텍스트와 연관된 여러 가지 과제를 풀어야 한다. 과제는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것과 또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읽기 텍스트의 이해와 정리

긴 텍스트가 주어지고 텍스트와 연관된 여러 가지 과제가 제시된다. 학생은 일반적인 내용의 학문적인 문체로 쓰여진 텍스트를 이해하고 논평을 가하고 본인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학문어 구조의 이해와 정리

이 분야는 주어진 텍스트에서 학문에서 유용하게 쓰일 언어 구조를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점검한다.

4) 텍스트 생산

이 분야는 인용문, 그림, 도표 등에 제시된 테마에 대해서 글로 설명하고 논증하는 능력을 점검한다.

독일 에어푸르트 대학에서 2000년도에 제시한 어학 시험의 모델을 예로 들어 본다.⁴⁾

4) 독일 튀링엔 (Thüringen)주의 수도 에어푸르트 (Erfurt)대학의 언어센터 (Sprachenzentrum)의 홈페이지에 DSH-Prüfung에 시험 모델 (Musterprüfung)이 제시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지면 관계상 각 분야의 과제에서 한 가지 예만 들기로 한다.

a. 듣기 텍스트를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에는 35분이 주어진다. 듣기 텍스트의 내용은 “미국에서의 교환 학생으로서 (Als Austauschschüler in den USA)”라는 주제로 DIN A 용지로 1페이지 반 되는 분량 (63줄)이다. 이 텍스트에 대한 과제는 아홉 가지 문제 (한 문제는 둘로 되어 있음)로 본인의 의견을 쓰는 것이다. 첫 번째 질문을 예로 제시해 본다: “Warum ist der Ausdruck ‘Austauschschüler’ eigentlich nicht zutreffend? (교환 학생이라는 표현이 왜 맞지 않는가?)” .

b. 읽기 텍스트를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에는 50분이 주어진다. 읽기 텍스트의 내용은 “어떻게 아이들이 읽고 쓰는 것을 배우는가 (Wie Kinder lesen und schreiben lernen)”라는 주제로 DIN A 용지로 2페이지 (85줄)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이 텍스트에 대한 과제는 아홉 가지 문제 (한 문제는 둘로 되어 있음)로 본인의 의견을 쓰는 것이다. 첫 번째 질문을 예로 제시해 본다: “Wie schreiben Kinder ihre Wörter am Anfang auf? (아이들은 처음에 단어를 어떻게 받아적는가?)” .

c. 학문어 구조의 이 정리에서는 45분이 주어진다. 과제는 읽기 텍스트에서 제시된 텍스트를 근거로 하여 주어진 언어 구조를 변형하는 등의 문제이다. 첫 번째 과제를 예로 제시한다: “Bilden Sie aus dem Kompositum jeweils eine Wortgruppe. (다음 합성어를 구로 바꾸시오.): der Rechtschreibfehler (Zeile 4) ... die Schuhschachtel (Zeile 77)” . 전체 과제는 크게 일곱 가지 문제이며 각 문제는 다시 하위 분류되어 있다.

d. 텍스트 생산에 관한 문제는 80분이 주어져 있다. 학생은 두 가지 과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쓰는 것이다. 두 가지 과제를 예로 제시한다: “1. Wir stehen am Anfang des 21. Jahrhunderts. Was möchten Sie in diesem Jahrhundert an Altem erhalten, was möchten Sie lieber im 20. Jahrhundert zurücklassen? (우리는 21세기 초반에 있다. 이 세기에서 옛날 것을 보존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20세기에서 무엇을 남겨두고 싶은가?)”

2. “Der Mensch braucht die Natur, aber die Natur braucht den Menschen nicht.” (Günter Eich) Setzen Sie sich mit diesem Ausspruch von Günter Eich auseinander! (인간은 자연을 필요로 하나, 자연은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귄터 아이히) 귄터 아이히의 이 말에 대해서 논하시오.

5. 과제의 유형

테스트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과제가 가능하며 이 과제들이 어느 정도로 개방적인가에 따라 개방형 과제(offene Aufgabe), 반 개방형 과제(halboffene Aufgabe) 그리고 폐쇄형 과제(geschlossene Aufgabe)로 나뉜다 (Albers/Bolton 1995, 27-34).⁵⁾ 일반적으로 이 과제를 객관식 과제와 주관식 과제로 구분하기도 한다.⁶⁾

1) 개방형 과제

학생은 구두 시험이나 편지 쓰기 등의 과제에 대해서 비교적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제를 일반적으로 개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문어나 구어의 생산적인 표현을 평가하는 데에는 개방형 과제가 적당하다. 이 과제의 평가는 객관성이 결여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경우 평가지침을 되도록 자세히 규정하고 과제 자체도 구체적으로 정확히 제시하여 주관적인 판단을 줄일 수 있다. 평가자에게는 이러한 유형의 과제를 만드는 것이 간단하여 시간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다. 이 과제가 말하기와 쓰기의 내용을 평가하는 경우 내용 면의 평가와 문법과 정서법의 평가는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인터뷰, 작문, 요약하여 쓰거나 말하기의 과제가 이에 속한다.

5) Bolton (1996, 26-40)은 개방형과 폐쇄형으로만 나누고 반 개방형 과제는 폐쇄형으로 간주한다.

6) 폐쇄형 과제는 객관식, 반 개방형 과제는 준 객관식이라 하고 개방형 과제는 주관식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민주 1999, 390-392).

2) 반 개방형 과제

과제의 문맥이 정확하게 주어지고 학생이 답을 스스로 작성하는 과제 유형을 반 개방형 이라 한다. 이 과제는 학생들이 문법이나 어휘를 생산하는 능력을 제한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a. 보충과제(Ergänzungsaufgabe) b. 빈칸 테스트(Lückentest) c. 클로즈 테스트(Cloze-Test) d. 씨 테스트(C-Test) 등이 있다.

a. 보충 과제

일반적으로 개별 문장이 주어지고 문장 안에 괄호가 있어 이 괄호에 알맞은 단어를 보충하는 형태이다. 정서법과 문법을 점검하는 데에 많이 이용된다. 이러한 과제는 의사소통 상황과 관련없이 제시되며 언어가 실제로 사용되는 상황이 고려되지 않아 지루하고 현실감이 없는 단점이 있다. 구조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고립된 문장에서 정확한 문법과 어휘의 규칙을 점검하는 것이 과제의 목표이다.

예: “Bitte ergänzen Sie die Sätze.

Gehen wir ein bisschen im Park?” (Albers/Bolton 1995, 29)

b. 빈칸 테스트

보충 과제가 문맥과 연관이 없이 개별 문장이 제시되는 반면에 이 과제는 문맥이 제시되어 있는 텍스트에 빈칸이 제시되는 형태이다. 문법이나 어휘를 점검하는 데에 많이 이용된다. 이러한 과제는 일반적으로 한 가지만 평가할 것을 권장한다. 예를 들어 과제의 목표가 문법 평가인 경우 문법만 다루어야지 문법과 어휘 두 가지를 동시에 다루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예: “Bitte schreiben Sie die fehlenden Wörter in die Lücken.

Liebe Sonja,

Hamburg, den 15. 3. 83

Wir wohnen jetzt schon ein Jahr Hamburg. Man lebt hier wirklich viel besser als Köln. Komm doch mal Hamburg. (중간 생략) Also komm bald mal Hamburg.

Herzliche Grüße

Jens und Petra” (Albers/Bolton 1995, 29)

c. 클로즈 테스트

비교적 장문의 읽기 텍스트가 주어지고 이 텍스트에 일정한 순번의 단어가 괄호로 대치되어 이에 알맞은 단어를 채우는 과제이다. 예를 들어 정해진 텍스트에서 매 다섯 번째 단어가 기계적으로 삭제되며 학생은 이 단어를 보충해야 한다. 빈칸 테스트는 전치사, 부사 등 특정한 어휘나 문법을 훈련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나 이 테스트는 기계적으로 빈 칸이 제시되어 모든 품사와 쉽고 어려운 문장 구조와 어휘를 두루 다루게 된다.

50년대 텍스트의 난이도 결정과정에서 발전된 이 테스트는 언급한 대로 텍스트를 전체 문맥과 연관하여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사고 능력까지 점검할 수 있다고 하나 실제로 모국인에게도 간단한 테스트는 아니다 (Perlmann-Balme 2001, 998).

예: “Bitte versuchen Sie, die Lücken zu füllen und beantworten Sie dann die Frage unten:

1. Jedes fünfte Wort wurde gelöscht:

In den alten Zeiten, das Wünschen noch geholfen, lebte ein König, dessenwaren alle schön, aber jüngste war so schön, die Sonne selber, die so viel gesehen hat, sich, sooft sie ihr ins blickte.” (Bolton 1996, 127)

d. 씨 테스트

이 테스트는 클로즈 테스트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이 과제에서 텍스

트의 첫 번째 문장은 빈 칸 없이 완전하게 주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도 완전히 주어지거나 또는 마지막 문장의 일부가 주어져서 텍스트의 상황이 보다 명확하게 된다.⁷⁾ 클로즈 테스트처럼 정해진 순번의 단어가 삭제되거나 단어 전체가 아니라 반만 삭제되는 과제이다. 80년대에 개발된 것으로 학습자에게 부담이 덜하여 해답도 쉽게 찾을 수 있고 평가도 보다 수월한 편이다 (Perlmann-Balme 2001, 999).

예: “Gestern ist eine 76 Jahre alte Frau in Garath bei einem Unfall tödlich verletzt worden. Die Fussgä... hatte i... Höhe d... Stettiner Str... die Frank... Straße überq... wollen u... war da... von ei.... Auto angef... worden. (중간 생략) I... Krankenhaus er... die Frau ihren schweren Kopfverletzungen.” (Heyd 1991, 217)

3) 폐쇄형 과제

학생이 보기에 주어진 여러 가지 답에서 올바른 답을 고르는 과제의 형태이다. 이 과제에는 a. 선다형(Multiple Choice/ Mehrfachwahlaufgabe) b. 정오 과제(Richtig-falsch Aufgabe)/ 예 아니오 과제(Ja-Nein Aufgabe)⁸⁾ c. 연결과제(Zuordnungsaufgabe) 등이 있다.

a. 선다형

선다형의 과제는 질문(Stem)과 답(Option)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때에 답은 정답(Key)과 오답(Distraktor)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답은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이어야 한다. 질문은 명확해야 하며 질문에 정답이 내포되지 않아야 한다. 정답과 오답은 가급적 짧고 명확해야 하며 길이가 비슷해야

7) 클로즈 테스트에서도 첫 번째 문장은 완전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Perlmann-Balme (2001, 999)은 주장한다. 그러나 Bolton (1996, 128)에서는 클로즈 테스트에서 첫 번째 문장에서도 괄호가 제시되어 있다. 앞의 클로즈 테스트의 예문을 참조하라.

8) 이러한 형태의 과제는 독일어로 Alternativantwort-Aufgabe라고도 한다.

한다. 이들은 되도록 긍정적인 표현으로 작성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의 위치는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한 가지 번호에 정답이 집중되지 않아야 한다.

이 과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지만 우연히 맞출 수 있는 확률도 많아서 과제의 수를 많이 하여 이 확률을 줄여야 한다. 평가자가 선다형 과제를 작성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으나 평가가 수월하고 또 학생은 간단히 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 “Wie geht der Satz weiter?

Weil wir kein Geld hatten,

- a. im Urlaub fahren konnten wir letztes Jahr nicht.
- b. konnten wir letztes nicht in Urlaub fahren.
- c. letztes Jahr konnten wir nicht in Urlaub fahren.
- d. wir konnten letztes Jahr nicht in Urlaub fahren.”

(Albers/Bolton 1995, 30)

b. 정오 과제/예 아니오 과제

주로 듣기와 읽기 테스트에 응용되며 학생은 주어진 질문이 텍스트의 내용과 부합하는 지를 결정한다. 과제를 만들기가 선다정보다 수월하며 전체 내용과 세부 내용 평가에 이용될 수 있다. 학생들이 모르고도 알아 맞출 수 있는 확률은 50%이다. 주어진 텍스트에 되도록 많은 문제를 내어 우연히 알아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예: “Was stimmt?

Das Nachrichtenband

Seit drei Wochen wohnt Michael jetzt hier im neunten Stockwerk. Drei Wochen Langeweile sind das, denn niemand kennt sich hier. (이하 생략)

- 1. Michael ist begeistert davon, dass er jetzt im neunten Stockwerk wohnt. Ja/Nein” (Albers/Bolton 1995, 31)

c. 연결과제

관계되는 것끼리 연결하는 과제로써 형태가 다양하다. 텍스트를 읽거나 듣고 알맞은 그림과 연결하거나, 도표에 제시된 기준에 맞게 단어를 골라 넣거나, 같은 범주에 속하는 단어를 찾거나 또는 연관되는 문장을 연결한다.

예: “Was passt wo?”

- | | | |
|------------|---------|--------------------|
| a) Verkehr | b) Zeit | c) Politik (중간 생략) |
| | | |
| | | |

Briefumschlag, Lehrer, Schwester, Kollege, Unfall, Päckchen” (이하 생략)
(Albers/Bolton 1995, 31)

위의 형태 이외에 언어 교육에서는 받아쓰기라는 테스트 형태가 있다. 이 테스트는 고전적인 형태의 과제로 요즈음에는 많이 시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Heyd 1991, 213). 이 과제는 정서법 뿐 아니라 텍스트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도 평가할 수 있다. 학습자는 들은 것을 근거로 음, 어휘, 문법구조를 문맥을 통해서 감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받아쓰기는 수준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지고 또 목표에 따라 정서법, 문법, 어휘 받아쓰기로 나뉜다. 실행하는 방법에 따라 시각적 받아쓰기, (전에 외웠던 텍스트를 기억해서 쓰는) 스스로 받아쓰기, 시각과 음성에 따른 받아쓰기, 빈칸 받아쓰기, 청력에 따른 받아쓰기로 구분한다.

6. 테스트 다프 (Test DaF/ Test Deutsch als Fremdsprache)

국제 공통으로 시행되고 있는 독일어 시험이며 하겐에 있는 테스트 다프 인스티투트에서 중앙 관리한다. 독일 대학에서 유학을 하려면 입학 등

록(Immatrikulation)이전에 독일어 실력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 이 시험은 독일어 실력을 점검하는 시험으로 독일 대학 입학 언어 시험을 대신할 수 있다. 이외에도 유학생이 본국에서 독일어 실력에 관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 또는 학자나 연구직에 종사하는 이들이 독일어 실력에 대해서 점검이나 증명이 필요한 경우 이 시험을 볼 수 있다.

이 시험은 독일 학술 교류처와 독일 총장 회의의 위임을 받아 하겐 원거리 대학(Fernuniversität), 보쿰의 루어 대학 언어학과, 뮌헨의 독일 문화원과 쾰른의 칼 두이스부르크 재단 연합이 1998년에서 2000년 사이에 개발한 것이다. 2001년 초에 하겐 대학과 루어 대학에 관리처가 생겼으며 전 세계적으로 65개국에서 이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일 문화원에서 이를 담당한다.

이 시험은 독일어를 700 - 1000시간 이수한 것을 전제로 하고 독일어 실력을 3등급으로 평가한다: Test DaF (TDN) 3, Test DaF (TDN) 4, Test DaF (TDN) 5. 언급된 모든 분야의 시험 결과가 각각 TDN 4이상인 학생은 테스트 다프 규정에 따라 독일 대학 입학시 필요한 언어 능력을 인정 받는다.⁹⁾

이 시험은 읽기, 듣기, 필기 시험과 구두시험으로 되어 있다. 각 시험 모두 위의 등급으로 평가되며 시험시 어떤 보조 수단도 허용되지 않는다. 테스트 다프는 일년에 여러번 응시가 가능하며 이번 조사에 의하면 시험 유효기간은 확인할 수 없었다.

1) 읽기

학업과 연관된 문어 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을 점검하며 학생은 텍스트의 전체 문맥과 세부 사항을 이해해야 한다. 테스트 시간은 60분이다. 수준이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읽기 텍스트 유형이 제공되며 과제 형태와 텍스트 종류가 다양하다. 특정 전공에 관한 전문 지식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

9) <http://www.testdaf.de>에 제시된 테스트 다프 규정 (§4, Abs. 5 RO-DT Rahmenordnung über Deutsche Sprachprüfungen für das Studium an deutschen Hochschulen)에 해당한다.

첫 번째 텍스트 유형은 학업과 연관된 8개의 짧은 텍스트로 구성이 되고 대략 300 - 450 단어를 포함한다. 과제의 형태는 연결 과제로서 텍스트와 제시된 문장을 서로 연결해야 한다.

두 번째 텍스트 유형은 학문 분야에 관한 보고서 양식을 대상으로 한다. 텍스트는 450 - 550 단어로 되어 있고 과제 형태는 삼지 선다형으로 텍스트와 일치하는 답을 고른다.

세 번째 텍스트 유형은 학술지나 전문지의 내용에 관한 것으로 550 - 600 단어로 되어 있다. 과제 형태는 정오 과제로 제시된 정보가 텍스트에 맞는지를 점검한다.

2) 듣기

학업과 연관된 구어 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을 점검하며 학생은 텍스트의 전체 문맥과 세부 사항을 이해해야 한다. 테스트 시간은 40분이다. 수준이 다른 세 종류의 읽기 텍스트 유형이 제공되며 특정 전공에 관한 전문 지식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

첫 번째 텍스트 유형은 250 - 400 단어로 되어있는 대학 일상생활에 관한 대화이다. 텍스트를 한 번 듣고 질문이 요구하는 주요 단어를 쓰는 것이다.

두 번째 텍스트 유형은 여러 사람이 참여한 일반 학문 영역에 관한 인터뷰이다. 텍스트는 450 - 600 단어로 구성되어있다. 학생은 이 텍스트를 한 번 듣고 텍스트에 대한 진술 과제가 맞는지 틀리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세 번째 텍스트 유형은 450 - 600 단어로 된 독백 형식이다. 학생은 이 텍스트를 두 번 듣고 질문에 대한 답을 쓰는 것이다.

3) 필기 시험

학업과 관련된 주제를 전체적으로 이해 했는가를 점검하는 것으로 시험 시간은 60분이다. 이 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이 주제에 관해 기술하고 또 논증을 하는 것이다. 일정한 주제에 관한 그림, 도표, 다이어그램과 이에 대한 질문이나 진술이 제시된다. 학생은 이 제시된 질문에 대해서

기술하거나 때로는 비교를 하고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기술에서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논증 형식으로 본인의 입장과 이유를 들어야 한다. 평가는 전체적 인상, 과제를 다루는 능력과 언어 표현을 근거로 한다.

4) 구두 시험

학업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말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시험 시간은 30분이다. 과제가 서류로 제시되고 동시에 카세트에 녹음된 텍스트도 들려 준다. 대답은 다른 카세트에 녹음이 된다. 과제는 네 분야에 관해서 모두 10 문제가 제시되며 난이도가 단계별로 지정되어 있다.

첫 번째 분야는 짧은 전화 통화이다. 학생은 자신에 대한 정보와 왜 전화를 하는지 말한다.

두 번째 분야는 대학 일상생활에 관한 네 가지 과제이며 학생은 원하는 정보를 알려주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킨다.

세 번째 분야는 도표가 제시된 두 가지 과제로 도표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다.

네 번째 분야는 토론에 관한 것으로 세 가지 문제이다. 본인의 주장을 말하고 주장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 평가는 전체적 인상, 과제를 다루는 능력, 언어 표현을 근거로 한다.

테스트 다프의 전체 시험은 총 3시간 10분이며 하루에 시행되어야 한다. 읽기, 듣기, 필기시험, 구두 시험의 평가가 모두 TDN 5 이 되면 대학 입학 독일어 시험 DSH이나 Deutsches Sprachdiplom, Stufe II (DSD II) 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된다.¹⁰⁾

테스트 다프를 위해서 제시된 모델 시험 문제의 테마는 다음과 같다.

읽기 테스트의 테마로는 a. 서적 선택에 관한 충고 b. 빙하 시기 c. 부모와 자녀 관계에 관한 연구이다.

듣기 텍스트로는 a. 대학 도서관에서 b. 사회와 학생에 관한 연구 프로

10) <http://www.testdaf.de/html/testdaf/ueberblick.htm>의 4쪽 참조함.

젝트 c. 지능 연구에 관한 헬러 교수와의 대화이다.

필기 시험 주제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것이다.

구두 시험 텍스트는 a. 독일 학술 교류처와 통화 b. 졸업 시험에 관한 대화 c. 사진 응모전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전화 d. 기숙사 방 문제에 관해서 전화응답기에 녹음하기 e. 세미나 참여를 위한 요청 g. 컴퓨터 교육에 관한 그림에 대한 설명 h. 폐지 리사이클링에 관한 레포트 i. 입학 허가를 요구하는 대화 j. 소규모 대학과 대규모 대학에 관한 찬성과 반대 k. 대학 평가에 대한 입장이다.

다시 한 번 요약하면 테스트 다프는 일종의 독일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외국인이 독일 대학에 입학할 때에 필요한 어학시험을 대신할 수 있다. 이 시험은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의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을 점검한다. 테스트의 주제는 기숙사등 일상생활과 졸업 시험등 학업 준비를 위한 내용을 위시해서 환경문제, 컴퓨터 등 다양하다. 과제의 형태도 선다형, 연결형, 정오 과제, 주요 단어 쓰기, 작문 등 여러 가지이다. 듣기와 말하기는 카세트에 녹음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테스트 다프가 나름대로 다양한 테마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과제를 통해 정당한 평가를 하려는 것을 알 수 있다.

7. 결론

학교 교육에서 평가라는 분야는 학생이나 교사에게 부정적인 면을 많이 보여준다. 이는 평가가 대부분 타의적으로 이루어지며 테스트나 시험이 수업의 내용과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때로는 테스트에서 다루는 내용만을 수업에서 다루게 되어 수업 목표와 학생들의 동기유발을 제한할 수 있다. 학교 교육에서 교육 내용 및 방법 뿐 아니라 평가 면에서도 각국대로의 전통이 있게 마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과도한 학생수, 학교의 수준, 교과내용 등에 따라 평가 방식이 중앙에서 통제하는 폐쇄형 즉 객관식으로 획일적이다. 주관식 과제인 경우에도 독일에서 말하는 반 개방형 평가 방식이 주를 이룬다.

독일에서는 영어권에서와는 달리 중앙에서 통제하는 TOEFL(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같은 시험이 많이 개발되지 않았다. 이러한 획일적인 시험은 학생 개인의 개성을 무시한다는 회의적인 견해가 많기 때문이다. 또 행동주의 이론에 입각한 평가 형태가 과도로 이용되면 학습자의 전인교육이 무시된다는 것이다. 선다형 과제도 같은 이유로 독일에서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독일 대학 입학에 필요한 김나지움의 아비투어(Abitur)¹¹⁾도 중앙 통제가 아니라 각 주마다 달리 실시된다. 학생들은 아비투어를 위해서 최종학년 내내 정해진 과목에 대해 평가를 받으며 평가 형태도 개방형을 위시해서 다양하며 선다형 과제는 2차적으로만 이용되고 있다. 독일어의 중앙 관리 형태의 시험으로는 60년대에 Zertifikat Deutsch라는 시험이 개발되기 시작하여 2001년부터는 Test DaF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평가는 객관성, 신뢰성, 타당성 원칙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평가의 형태도 개방형과 폐쇄형, 반 개방형 이 교육의 목표와 교과내용에 맞추어 적절히 혼합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자체가 수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되며 평가는 학생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이어야 한다. 나아가서 평가는 학생들에게 동기유발의 기회를 주고 자신의 능력을 재고하게 하여 앞으로의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독일어 교육과 관련하여 제안하고 싶은 점은 평가의 체계화이다. 문법, 어휘와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을 점검하는 독일어 등급 시험 또는 독일어 자격 인증 시험같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제도는 물론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독일어 교육의 목표, 내용, 단계와 긴밀하게 연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는 작업은 개인적인 차원으로는 불가

11) 독일 김나지움을 마쳤다는 일종의 자격 증명 시험이다. 언급하였듯이 이에 필요한 시험은 특히 최종학년에 여러 선택 과목과 필수 과목으로 다양하게 실시된다. 이 증명으로 독일 대학에 입학 할 수 있다. 참고로 독일 학제는 초등과정 4년 후에 중등과정이 시작된다. 중등과정은 다시 두 단계 (중등과정 I, 중등과정 II)로 나누어 진다. 중등과정 I 에 하우프트 슐레 5년, 레알슐레 6년과 김나지움 중 6년까지 해당된다. 김나지움은 총 9년으로 마지막 3년이 중등과정 II 에 속하며 이 과정이 대학 학업을 위한 준비과정이라 할 수 있다.

능하고 교육부의 관계 기관과 독일어 학회, 독일 문화원 등 공적인 기관과 독일어 담당 교수와 교사의 긴밀한 협조 하에 가능할 것이다.

이 제도의 등급은 현재 독어 교육 상황과 실정에 맞는 초급, 중급, 고급 독일어 수준을 정하여 문법, 어휘와 언어의 네 기능에 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이 데이터 베이스는 독일어 교재 편찬을 위시하여 독일어 수업에서도 참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등급 시험이 공식적으로 숙달 확인 시험의 일종으로 인정되어 대학 입시, 대학원 입시, 취직 시험, 고시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서 이제는 독일어 교육의 양보다는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는 것이 시급하다.

참 고 문 헌

- 김덕기 (1999): 영어 교육론, 서울, 고대 출판부.
- 배두본 (1998): 영어 교육학, 서울, 한신문화사.
- 이계순 (1985): 영어 교수법, 서울, 한국 방송 통신 대학.
- 조명원 (1981): 현대 외국어 교육, 서울, 한신문화사.
- 최은규 (2003): 한국어 평가 이론과 실제, in: 민현식 (편): 한국어 교육 (2), 서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외국인을 위한 지도자 과정, 179 - 222.
- 한민주 (1999): 불어교육 평가, in: 송정희 외: 불어 교육론, 서울, 도서출판 하우, 379 - 411.
- Albers, Hans-Georg/ Sibylle Bolton (1995): Testen und Prüfen in der Grundstufe. Einstufungstests und Sprachstandsprüfungen (Fernstudieneinheit 7), München.
- Bolton, Sibylle (1996): Probleme der Leistungsmessung. Lernfortschrittstest in der Grundstufe (Fernstudieneinheit 10), München.
- Doye, Peter (1995): Funktionen und Formen der Leistungsmessung, in: Bausch, Karl-Richard/Herbert Christ/Hans-Jürgen Krumm (Hg.): Handbuch Fremdsprachenunterricht. 3. Aufl. Göttingen, 277-282.
- Esser, Ulrich (1991): Tests im Fremdsprachenunterricht, in: Deutsch als Fremdsprache hg. v. Herder-Institut, H.3, Jg. 28., München,